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에 있어서 민주주의론의 재구축*

金 東 洙 (통일교육원)

I. 머리말

오늘도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로서의 구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결정요인은 역사의식의 차원에서 가능성을 생산하는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¹⁾ 오늘날을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역사의식을 토대로 정립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체주의 이후 민주주의이상의 보편화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가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이론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냉전의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해석하는 후쿠야마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양식이라고 주장한다 (Fukuyama 1989). 그러나, 그의 논리는 역사의 역동성에 대한 몰이해와 단지 역사를 관념으로 대치시키고 관념을 사회적 행위자로부터 분리시킨 데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Pieterse 1993). 이제 자유주의가 정치철학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던 시절은 거의 지나갔다.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무비판적 등식화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상을 정의로운 사회질서 안에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라든지 민주주의이론과 배분적 정의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는 경향에서 그러한 변화를 읽어볼 수 있다.²⁾

* 본 논문의 내용은 정부의 입장이나 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둔다.

1) P. Osborne, "The Politics of Time," *Radical Philosophy*, 68(Autumn 1994), pp.3-9.

1980년대이래 배분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1970년대의 정의론 대신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더욱이, 1990년대이래 심층 토론과정에 초점을 맞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1970년, 80년대의 중심 개념들의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의 문제가 사실상 공동체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임을 밝혀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³⁾

최근 자유민주주의의 변형 및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모색하는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이론가들은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질서의 다른 특징들(예컨대, 권리보호와 자유, 다원주의, 통치가능성)과 민주적 참여의 균형을 모색하는 이론집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집단으로 대별화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논쟁의 기저에는 자아(the self) 및 자아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자아를 단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규정할 경우, 민주주의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집약의 도구로 이해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추구하는 논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기본가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자유나 안전, 질서 등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발전과 관련된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확장이론의 경우에 결코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과 혼동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필수적이라고 할 진정한 시민권과 공동체를 구체화할 조건에 주목하는 민주주의론자들은 자아의 '우연성'과 구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공생활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와 공동체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접근법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공동체주의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불분명하게 한 채 통합적 접근방법을 취하곤 한다. 반면에 민주

2) I. Shapiro, "Three Ways to be a Democrat," *Political Theory* 22, No.1(February 1994), pp.124-5.

3) W. Kymlicka & W. Norman, "Returns of the Citizen," *Ethics* 104, No.2(January 1994), pp.352-381.

주의 확장론자들은 민주주의 없는 통합이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적 역량부여, 대화, 상호작용의 중심성을 강조한다(Warren 1992, pp.8-9; Connolly 1991, pp.64-94).

이상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자아실현 및 도덕적 자기발전의 역동성이 사회정의의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차이(difference)의 조화가능성을 모색한 최근의 토론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론에 주목하게 된다.⁴⁾ 권리의 보편적 기초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윤리를 접목시킨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의론의 핵심으로서의 민주적 참여와 정당화의 결정적 조건으로서의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하버마스는 그것이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적 복지(연대) 사이를 연결지음으로써 자유주의-공동체주의논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Ingram 1993, pp.294-321).

그러나, 최근의 논쟁에서 부각된 논점들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통해 사회적 자아, 공동체, 공동선 등의 중요성이 19세기를 통해 강조된 바 있다. 물론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맥락 때문에 과거의 사상은 수정된 이론에 입각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때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마도 역사적 경험이 짧은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헤겔의 영향을 받은 후기 빅토리아시대의 영국의 이상주의 정치철학자 그린(T.H. Green)의 적극적 자유론, 공동선, 국가를 중심으로 신이상주의적 민주주의론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자유주의의 재생을 시도하며 민주정치를 도덕적 자기발전의 중요한 방법으로 파악했던 밀(J.S. Mill)의 절충주의적 민주주의론과 그린의 관념적 민주주의론의 종합화를 시도한 홉하우스(L. T. Hobhouse)의 수정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린의 사상적 후계자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토의(discussion)에 초점을 맞

4) J. Habermas, "Three Models of Democracy", *Constellations* 1(1994), pp.1-10.

추어 이론에 다원주의를 접목시킨 바커(E. Barker)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⁵⁾ 여기서 토론과정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민주주의이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바커의 기여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위해 새로운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민주주의이론에 대해 재음미하고자 한다.

II.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 공동선과 민주주의

신이상주의(Neo-Idealism)로 알려진 19세기 영국의 이상주의는 영국사상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낮은 삽화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870년대 중반에 그린, 브래들리(F.H. Bradley) 등이 제안한 이상주의는 영국의 주요 사상학과로 급부상하여 이후 반세기동안 철학논쟁을 주도했었다. 당시 이상주의는 사회, 정치개혁을 위한 도덕적 이론으로 해석되었다. 영국의 이상주의 철학자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리증진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전략이기도 했다⁶⁾

18세기 이래 자유주의 전통에서 영국정치에 관한 휘그(Whig)적 견해의 본질은 정부의 핵심기능이 개인적 자유라는 사적영역을 보증하는 동시에 그것을

5) B. Parekh, *Contemporary Political Thinkers*(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64. 여기서 맥퍼슨은 흄하우스, 바커, 린제이, 듀우이 등을 '신이상주의적' 다원주의자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모형과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을 결합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6) S.M. Den Otter, *British Idealism and Social Explana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6), pp.1-3;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이 낯설게 느껴진 것은 그것이 주로 칸트와 헤겔의 독일철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고 그 결과 영국사상의 전통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상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철학적 입장이 헤겔철학으로 범주화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프러시아의 군국주의와 독일철학을 동일시하는 고정관념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게 되자 이상주의자들은 헤겔의 추종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다(10-14).

존중하는 것에 있다고 본 점에 있다. 정부와 그 기능에 관한 이러한 소극적 견해는 유럽대륙에 있어서 이론 및 실천적 발전에 의해 근본적 도전을 받게 된다. 헤겔과 루소를 필두로 한 그러한 대항적 전통은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를 단순히 시민사회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사회적 존재의 최고목적이며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도덕적 공동체라고도 보았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현실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민사회를 상징하는 개인의 해방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시민사회가 모든 사회관계를 포함하지도 않고 사회적 조화 및 사회적 안정 그리고 인간의 고매한 도덕성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⁷⁾

19세기 후반 헤겔의 영향을 받아 자유방임경제이론에 기초한 기존의 소극적 국가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초기 자유주의사상과 결별한 것은 영국의 이상주의 철학자 그린이었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옹호하는 무제한적 이윤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부정을 초래해 왔다고 믿었다. 그와 같이 신이상주의가 1870년대에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출현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이 기존 자유주의전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도 변화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리주의자들로 하여금 초기 자유주의의 기대를 수정하고 국가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S.M. Den Otter, pp.109-111). 물론, 그보다 앞선 1820년대에 선거권 확대와 관련하여 벤담(J. Bentham)과 제임스 밀(J. Mill)은 남성유권자의 보통선거권을 조심스럽게 지지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급진화된 유럽의 변화 속에서 기존체제가 대체될 경우에 민중적 지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일부 영국 자유주의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⁸⁾

7) A. Gamble,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London: Macmillan, 1981), pp.54-56.

8) J. Hoffman, *State, Power and Democracy*(Sussex: Wheatsheaf Books, 1988), pp.162-165. 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투표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결코 권력의 토대로서의 소유권을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점에서, 선거권 확대는 소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권리를 인정해 준 자유주의자들의 절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리주의의 재정립 모색은 사회의 계급적 분할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계급이익의 갈등을 계속 추상적 개념의 세계 속에 묻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도 모든 개인이 동일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리주의자들의 그러한 현실인식이 오히려 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하도록 만든 점에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투표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지배라는 가상의 사회적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마르크스의 희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와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적 선거권에 익숙해져 갔던 것이다. 그와 같은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산자계급의 급진적 경향을 희석시키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급간의 투쟁의 차원을 극복하는 일은 공동선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당제도의 채택을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산자계급에 대한 가시적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제도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린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 내의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토지개혁, 세제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또한 그린의 사상적 계보를 이은 바커나 린제이(A.D. Lindsay) 등은 추상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복지국가론을 지지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자임에 틀림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함에 있어서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보통선거권을 지지했으며, 민주주의를 자유주의 관념의 필수적인 기초로 간주했던 것이다(Hoffman 1988, 176-178).⁹⁾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적절한 기능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그린은 인간의 행위규범을 제시해 줄 윤리와 정치적 의무에 관한 이론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⁰⁾

9) L.T. Hobhouse, *Liberalism and Other Writings*, ed. J. Meadowcrof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109. 홉하우스는 민주주의를 공동의지의 형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것은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합리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10) T.H. Green,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and other writings*, ed. Paul Harris and John Morro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이하에서는 PO로 표기].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에는 칸트와 헤겔철학에서처럼 도덕적 발전(moral progress)의 이

기본적으로, 그린은 자본주의적 자유계약 하에서는 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유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소극적 자유의 신봉이 사회입법과 시행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린은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승인하였고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대체시켰다. 그는 가능한 한 자기의 인간성을 완성하는 것이 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천이성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삶의 조건은 의지와 이성을 갖추는 것이다. 의지는 자신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이다. — 실천이성은 자기 인간성의 완성을 행위의 목표로 삼는 인간의 역량이다. 모든 도덕적 관념은 이성 즉, 도덕적 행위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자기완성의 관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PO, sec. p.6).

이와 같이 도덕적 역량의 실천에는 의지와 이성의 사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것이 그린의 주장이다(PO, pp.252-253; *Prolegomena to Ethics*, sec. p.177). 그 역량의 완성은 결국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완전한 자기실현과 자유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진정한 자유는 자기완성의 추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PO, p.260).

도덕적 역량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결코 타자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완성하고자 하는 자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자아(the social self)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선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그린은 자아를 타자의 영원한 복지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복지를 이해하고 모색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PO, pp.263-4).

그렇다면, 도덕성이나 권리, 의무는 사회를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사회는 누구에게나 선으로 이해되는 공동선의 기반인 이성에 그 토대를 둔다고 할

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린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많은 주제들은 그와 교분이 두터웠던 콜리지(S.T. Coleridge)와 모리스(F.D. Maurice)의 저술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칸트와 헤겔의 영향이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P. Harris, "Moral Progress & Politics: The Theory of T.H. Green," *Polity* 21, No.3[Spring 1989]을 참조.

수 있다. 따라서 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무는 계약이나 효용이나 예지로부터가 아니라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의 실천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회제도는 바로 이러한 의식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자기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PO, sec. p.7). 다만,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목표의 추구가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존재 다시 말해서 공동체(community)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선이 바로 공동선(common good)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공동선에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개인의 진정한 선(the true good)은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타자의 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된다(PO, p.279). 그렇다면, 선(the good)은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리는 자아실현으로서의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윤리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켰던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사회적 자아의 이념에 입각하여 그리는 사회상태가 아닌 자연상태 속의 권리인 자연권을 하나의 모순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영국 자유주의의 관심사에 19세기 이상주의를 접목시키면서 그 중심에 권리개념을 가져다 놓았다. 추상성과 반사회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권의 허구성을 논증하고 대안적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전념했던 그의 권리에 대한 재해석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권리를 사회구성원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동이익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권리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PO, sec. p.31). 또 그런 맥락에서, 권리의 토대를 도덕적 역량에 두고 있다. 동시에 권리는 그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O, sec. p.29). 한마디로, 사회에 선행하는 권리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논리이다(PO, sec. p.30).

둘째, 개인들이 공동선에의 기여를 통해 자신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수단 또는 권력으로서 권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그리는 권리를 공동선에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권력으로서 정의하고 있다(PO, sec. p.99). 이처럼 권리가 도덕적 역량의 발휘를 위해 필요한 힘이라면 권리는 공동선의 실현

11) M. Bevir, "Welfarism, Socialism and Religion: On T.H. Green and Others," *The Review of Politics* 55, No.4 (Fall 1993), pp.651-655.

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이상주의자들에게 의무(duty)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지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 해석은 결국 사회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¹²⁾

셋째, 권리는 정태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진화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린은 권리개념을 일반선에의 기여도에 대한 특정사회의 평가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PO, sec. p.211, 212).¹³⁾

여기서 그린은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제도적 장치가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그는 국가의 기초가 동의나 힘이 아닌 ‘의지’(will)임을 분명히 한다(PO, SS, pp.113-118). 물론, 그 의지는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오스틴(J. Austin)의 주권개념에 대한 분석과 더 붙어 보다 분명해진다. 그 분석에서 그린은 특정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로부터 습관적 복종(habitual obedience)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물리적 힘(force)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O, sec. p.81). 의지와 마찬가지로 힘도 국가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힘은 그 속성상 본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기본적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함을 알 수 있다.¹⁴⁾ 그에 따르면, 모든 조직화된 공동체에 있어서 법이나 권위있는 관습이 요구하는 바의 행위와 자체에 관해 실제로 인민의 습관적 복종을 명령하는 권력은 공동체의 일반의지에 토대를 둔다는 것이다(PO, sec. p.87). 또한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합리적 의지가 개인의 성향에 대해 행사하는 힘이며, 단지 예외적으로만 강제력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힘이라고 파악한다(PO, sec. p.92). 그러나, 분명

12) P.P. Nicholso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British Idealist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83-115.

13) 신이상주의자인 리치의 관점은 그린보다도 훨씬 유동적이었다. 그는 브래들리나 보산케(B. Bosanquet)의 고전적 내지 정태적 유기체론과 대조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목적에 끼친 사회의 영향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선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일관성 및 연속성과 양립가능한 개인역량이 최고조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 이 균형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다(D.G. Ritchie, *Principles of State Interference* [4th edn. London, 1902], pp.105-7).

14) J. Hoffman, *Beyond the State*(Oxford: Polity Press, 1995), p.37. 이러한 그린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베버(M. Weber)는 힘을 핵심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베버도 힘이 국가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것은 정치사회의 제도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일반의지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는 점이다(PO, sec. p.93). 그리고 그 일반의지의 대행자를 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PO, sec. p.94). 이처럼 주권자가 공동체의 일반의지를 구체화한다고 파악한 점에서 우리는 그린이 루소의 일반의지 주권론에 주로 의존함을 알 수 있다(PO, sec. p.98).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인격완성의 조건으로서 공동선에 기초한 모든 권리를 유지, 보장, 완성시키기 위한 존재로 규정된다(PO, sec. p.134). 또한 그로부터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승인하게 된다. 그린이 보기에 성숙한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점에서, 그린은 개인이 자기의 이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제도의 필수불가결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국가 안에서의 자유의 실현은 오직 국가가 제공하는 영향력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유가 달성됨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PO, ss. pp.6-7). 여기서 자유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그린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적극적 자유에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위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린은 개인의 권리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요소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시사했다(PO, pp.228-234). 여기서 이상주의자들의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허용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은 공동선이 위협받을 경우에 그리고 그 위협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인정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냈다(PO, ss. pp.142-153). 그렇듯 이상주의자들은 강한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권리의 중요성을 지지했던 것이다.

개인이 공동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사회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힘을 권리로 해석한 그린에게 공동선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PO, p.104).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는 우선 다양한 형태의

사회생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문제를 조정, 체계화, 확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다른 역할로서는 공동체 안팎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강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공동선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건설과 국가존속의 명분을 제시한 그로서는 시민권 증진을 위한 도덕적 역량제고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설명한다(PO, pp.159-162). 이렇게 볼 때, 그린은 국가에 대해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정치적 권위의 기초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선의 실현은 사회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러한 소유권의 보장이 공동이익의 의식에 기초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와 같이 소유권제도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역량의 자유로운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설명에서 우리는 그린의 관심이 도덕적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PO, p.200).

이상에서 살펴본 후기 빅토리아시대의 정치사상적 특징은 대체로 사회적 문제와의 연관성과 개혁적 성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본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사상의 기본가정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던 것이다.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자들은 추상적 개인주의의 가정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시민권 및 공동체개념을 재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적극적 국가개입의 윤리적 기초를 제공해 왔다.¹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린의 경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종교적 이상에 토대를 둔 개혁가들로 구성된 사회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으로서의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15) 이에 관해서는 M. Freedman, *The New Idealism*(Oxford: Clarendon Press, 1978), pp.1-19 및 A. Vincent & R. Plant, *Philosophy, Politics and Citizenship*(Oxford: Basil Blackwell, 1984)을 참조; 공동체의 복지 내지 공동선개념은 이상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지 해석상의 차이만 존재하는 공유물이었다. 예컨대, 당시 개인주의에 집착한 철학자들은 공동선을 오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량을 의미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해석한 반면에 이상주의 철학자들은 공동선을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 해석했다. 특히, 그린의 경우에는 공동선의 특징을 인격체의 상호승인 및 자아실현의 상호촉진으로 이해하였다고 해석된다(Vincent & Plant 1984, pp.22-25 및 M.W. Taylor, "Men versus The St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41-42 참조).

로 극기하는 개혁가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신 안에 예수의 삶을 재연하는 것을 의미했다(M. Bevir 1993, pp.656-6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의 주장은 사회 각 구성원의 상호승인과 그것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인 시민권이 기존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본적인 결핍으로부터의 구제는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 점은 그린의 실천적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에 대한 해석에서 그는 국가를 복지조건의 적극적 제공자로서 보다는 오히려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도덕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던 것이다(E. Barker 1915, p.36). 그러한 해석은 원칙으로서의 적극적 국가론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복지문제가 결코 정치적 차원에서 적극적 계획의 추진은 없이 자발적 복지사업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편향적 이론이었기에 실제로 적극적 복지방안에 관해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린의 도덕성 함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재분배와 사회정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그린은 소유권의 기반이 의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PO, sec. p.217) 사실상 재산소유와 재산의 불평등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의 인격완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¹⁷⁾ 이 점에 관해, 맥퍼슨은 개인의 재산소유가 결국 대다수의 생존수단과 노동수단에의 공평한 접근을 부정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그린을 공격한다(C.B. Macpherson, 1973: p.120). 요컨대, 그린은 공동선에 의한 소유권의 규제를 이념으로 내걸어 자본주의를 교화하여 살기를 기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소극적 자유의 계급적 성격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Vincent, (ed.), 1986: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의 근본으로 간주된 협동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질서를 정립, 유지시킴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그린의 설명에

16) N. Barry, *Welfare*(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90), pp.36-38.

17) E. Barker,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1848-1914*(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5), pp.42-45. 사회적 위상에 따른 수단의 충족을 위해 초래된 재산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사회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강조한 공동선은 배제적인 선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그린의 공동선 개념은 지금까지 복지의 윤리적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의 정치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동체와 시민권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논점들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신이상주의적 민주주의이론의 구축: 다원주의적 수정과 토론민주주의

19세기 후반이래 영국자유주의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역사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개입의 확대를 옹호하는 이른바 근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에서는 기회균등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강조하였다. 철학적으로 영국이상주의를 포함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로 나타난 새로운 정치철학은 당면한 사회문제의 개선과 살기좋은 사회의 건설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구상하면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최대한 수용에 초점을 맞추었다.¹⁸⁾ 그러나, 그린의 이론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수정주의적 접근은 종교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념적(spiritual)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도덕적 포부를 표현하는 구심체로서의 신이상주의 국가개념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공동선의 표현방식을 제공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와 같이 민주주의가 신이상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정치공동체의 새로운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익에 의한 편견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18)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대체로 1880년대부터 1910년대 사이의 자유주의이론 및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1908-1916시기의 사회정책을 통해 표현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R. Pearson & G. Williams, *Political Thought and Public Policy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Longman, 1984), pp.144-170.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J. Hoffman, 1988: pp.179-182).

공리주의에 있어서 적극적 자유주의에로의 이행과 더불어 사회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을 우려한 반면, 공동선의 실현을 추구한 신이상주의에 있어서는 제도개혁을 통해 계급분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을 낙관했다. 그러나, 그 낙관론은 현실주의로부터 후퇴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후일 다원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분명히 민주주의적 시각의 대두는 자유주의 정치철학 내의 긴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한 관계인가? 19세기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권리의 확대운동 속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물론, 보수주의적 자유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자의 경우에는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비판적 견해는 소유권에 역점을 두는 자유주의와 인민의 지배에 역점을 두는 민주주의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개혁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지적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M. Freedman, 1978: pp.126-7).

자유방임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은 국가개입의 수준에 대한 윤리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정당성의 범위를 재정의하였으나, 추상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이론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수정은 추상성의 배제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기에 이르고, 그것은 19세기 밀(J.S. Mill)과 그린의 정치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종합적 체계화를 모색한 것은 수정주의적 자유주의를 정립한 홉하우스(L.T. Hobhouse)였다. 그는 우선 밀과 그린으로부터 기본착상을 도출했다. 밀로부터는 개인의 자유, 개인들간의 상호부조, 자유주의의 핵심 등을 수용하고 그린으로부터는 공동선, 사회, 자아발전의 성취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수용했다. 그는 개입주의적인 자유주의국가의 확립과 자유주의 정치교의의 이론적 재구성을 모색하면서 시민권의 원리와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에 관해서는 공동선에 봉사하는 결사체형태로서 개념화하고 시민권의 결속에 의해 국가가 구성된다고 정의하면서 사회전체를 조정할 책임성과 사회 각 부분의 조화를 주요기능으로 설명하였다.²⁰⁾ 따라서 국가의

19) N. Bobbio, *Liberalism and Democracy*(London: Verso, 1990), pp.45-49.

주요특징은 책임정부와 책임감있는 개인으로 요약된다. 그 점에서, 홉하우스는 공동체의 공동선이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와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을 위한 토대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존재로서의 근대적 개인은 사회적 산물(a social product)이었다(Hobhouse 1994, p.60).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복지의 조건을 잠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유기체적 시각으로서, 사회는 개인에게 인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선은 각 개인들의 자아발전의 조화에 의지함을 뜻한다. 그리고 그 조화는 선(the good)의 중심개념이며, 그러한 조화가 실현될 수 있는 운동을 진보(progress)로 개념화하였다.²¹⁾ 국가는 그러한 진보의 실현과 조화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를 다양한 사회적 등식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이해하였다. 한편, 실천적 맥락에서 홉하우스는 국가를 사회개혁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주의 정치의 개념화에 있어서 중심부로 인식하였다. 그것은 국가를 개선된 삶을 위한 결사체로 조망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Hobhouse 1994, p.134). 한편, 국가를 윤리적 진보의 결과로서 이해했던 그로서는 근대국가에서조차도 시민권의 원리가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그는 선거권 확대의 차원이나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 그리고 제국내 소수민족의 자율성 인정 등에서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시민권원리의 일관된 적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Meadowcroft 1995, pp.140-143). 이처럼 시민권원리에 기초한 결사체로서의 특징을 갖는 홉하우스의 국가관은 그린의 주장과는 구별된다. 그린은 국가를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조화시키는 실체로서 그리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파악한다(PO, p.112). 물론, 홉하우스도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그린과 유사하지만, 그 기능을 사적 권리(private right)를 유지하는 데 둔다는 점에 구별된다.²²⁾ 또한 홉하우스는 그린과 달리 국가의 권리보호와 민주주의, 입법에의 인민참여를 결부시켰다. 그 결과, 정치적 의무에 대해서도 견해차이를 나타낸다. 그린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권리를 유지시키는 국가의 역할에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두는데 반해, 홉하우스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

20) J. Meadowcroft, *Conceptualizing the State*(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136-138.

21) L.T. Hobhouse, *Social Evolution and Political Theory*(New York, 1911), pp.92-3.

22) Hobhouse, *Morals in Evolution*(London, 1906), p.62.

로서 역시 참여와 명시적 동의를 강조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기 위해 홉하우스가 채택한 보다 개혁적인 자유주의국가론의 핵심은 대의민주주의였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한 정부를 의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민의사에 의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가 강조한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사회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민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Meadowcroft 1995, pp.143-152). 또한 그것은 일반의지(the general will)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의지’(the majority will)를 반영하는 정치체가 내린 결정을 의미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사회진보를 향한 실험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며 실험의 결과는 시간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 실험이 완료되었다는 판명을 받으려면 시민권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Hobhouse 1994, p.135).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 개인, 공동체, 자유, 시민권 등의 개념에 대한 자유주의 전통 내의 변형과정을 거쳐 정치적 차원에서의 다원주의적 수정으로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민주주의이론가들의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바커와 린제이의 이론의 핵심은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의 변형으로서 이른바 공동생활의 정신(the spirit)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토의(discussion)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바커의 정치사상의 원천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는 이상주의(Idealism)와 다원주의(Pluralism)라고 할 수 있다. 후기 빅토리아시대에 있어서 공동선의식을 사회의 토대로서 확신한 이상주의는 당시 영국의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의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비되는 경향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의 명분과 민주주의의 명분을 잘못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대륙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국가가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려는 통제를 가능한 한 제한, 폐지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민주주의자들의 경우 다수의 권리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구분하였다. 사실 그러한 차이는 자유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견해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여를 통한 자유처럼 자율성을 자유로 해석하는 민주주의의 경우와 달리 자유주의에서는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해석한다. 그

리고 그와 같은 기본적 차이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 견해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해석 속에는 국가가 지나치게 강력해질 것이라는 위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국가기능에 대한 제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자유에 대한 잠재적 적대자로서의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의 목적과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증하려는 민주주의의 목적이 분명히 차이를 나타내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양자간의 갈등이 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뿌리와 민주주의적 요구 사이의 갈등의 역사는 오히려 민주화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의 다원주의는 정치적 경쟁의 이론으로서보다도 국가권위의 기초 및 국가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와 다양한 결사체간의 권력의 공유를 강조하는 규범적 견해로 이해되고 있었다.²³⁾ 다원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모색한 바커는 자유주의를 소극주의(negativism)가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국가의 지원과 보장에 의해 자유롭게 지위를 확보하는 자유인의 적극적(positive) 교의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거는 수(number)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a quality)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바커에 의하면, 그것은 견해의 질이며 진정한 일반의지에 도달하기 위해 토의방식으로 공동선을 모색하는 것이다.²⁴⁾ 여기서 바커는 일반의지와 토의과정의 중합을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자유민주주의이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토의과정을 통해 공동이익에 대한 입장을 도출해 내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개인과 개인의 선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유민주주의이론의 약점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토의 내지 자유토론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셈이다. 바커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단지 수의 의지에 의존하는 힘(force)의 논리 이상의 다른 것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이 인격의 자

23) P. Hirst, *The Pluralist Theory of the State*(London, 1989), p.3.

24) E. Barker, *Reflections on Governmen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2), pp.3-4.

유롭고 충분한 발전에 토대를 두면서 동시에 일치하는 정부체계를 찾아야만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바커는 구성원들의 견해를 상호교환, 상호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공동의 합의된 선택과정에 기초한 정부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자치정부(self-government)라고 본다. 즉, 그것은 모든 자아의 인격발전에 토대를 두는 동시에 일치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인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에서의 인민을 단지 대중(a mass)이나 다수(a majority)가 아닌 살아 있는 자아들(living selves)의 사회로서 파악한다. 그 점에서, 민주주의는 과정과 과정의 관념적 특성(spiritual quality)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바커의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이상주의의 관념적 접근과 홉하우스의 민주주의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바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토의로 규정하게 된다. 그것은 다양한 견해들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을 이끌어내는 토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토의의 장소, 방법, 기구의 문제와 토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건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주의를 수의 논리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토의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discussion)로 해석한 바커는 우선 토의에 의한 정부체계가 정당, 유권자, 의회, 내각의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고 보았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단계설정은 적실성이 없다. 영국의 경우, 의회는 유권자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정당체계가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의회와 유권자는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토의의 과정은 정당을 공식화하고 정당의 대변자로서의 후보를 내놓는 정당의 활동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E. Barker 1942, pp.35-37). 공동토론(common deliberation)의 합리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일반적 합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협동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체(self-control)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²⁵⁾

그렇다면, 바커는 대립되는 견해차이(differences)의 진정한 조정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는가? 그는 토의에 의한 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차이의 인정, 다수결의 원리, 타협(compromise)의 원리 등 세 가지 공리(axioms)로 정리하였다(E. Barker 1942, pp.63-69). 의견의 불

25) E. Barker, *The Citizen's Choice*(Cambridge, 1938), pp.27-9.

일치를 폐지하는 것은 토의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자유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커는 정신을 포함한 토의의 과정(process of discussion)이야말로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인 동시에 본질이라고 주장한다(E. Barker 1942, p.19, 67).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양보가 필수조건이 된다. 양보를 통해 다수의 견해는 소수의견의 일부를 수용하도록 확대되고 소수의 견해는 논쟁과정에서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토의가 끝났을 때 그리고 최종표결을 했을 때 다수의 의사는 비로소 새로운 정신을 담은 내용으로 재정립된다고 본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전원합의는 아니지만, 공동동의(common consent)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E. Barker 1942, pp.60-65, 100, 109, 210). 다만, 민주주의를 토의의 최종목표와는 상관없이 단지 ‘토의에 의한 정부’로 정의한 바커의 설명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국가의 타당성을 검증할 특정기준에 대한 과소평가는 바커의 민주주의개념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커의 토론 내지 토의에 의한 민주주의는 현대의 토론민주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길로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토론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바커의 신이상주의적 민주주의론의 의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자율성과 사회연대를 연결시켜 주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일단의 대의제도라면, 토론민주주의는 정치의장에서 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토론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주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토론정치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이론가인 마넵(B. Manin)에 의하면, 민주적 결정과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민의 의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인민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정치적 토론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가능한 해결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 안의 개인들 특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미 형성된 의사(an already formed will)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롤즈와 루소의 이론을 비판한다. 나가서 그는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심의의 과정은

정보를 확실하게 하고 자신들의 선호를 뚜렷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애초의 목표를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마넵은 정당성의 원천을 미리 결정된 개인들의 의사에서 찾지 않고 심층토론 자체에서 찾는다. 그로부터 정당성의 필수조건으로서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들고 있다. 결국 정당한 결정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토론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마넵은 토론의 원리가 개인주의적이고 동시에 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토론은 단지 발견의 과정만이 아니라 상호간의 설득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한다(B. Manin 1987, 338-368). 우리는 이상과 같은 마넵의 주장이 앞에서 검토한 바커의 주장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패러다임으로서 의사소통윤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적 참여를 강조한 하버마스의 토론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민주주의와 차이의 접합가능성을 제시한 하버마스는 토론민주주의의 방어에 역점을 두면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모형과 대비되는 ‘절차적’(proceduralist) 모형을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형으로 제시한다(J. Habermas 1994, pp.1-10). 그는 ‘토론적 결정작성’을 통해 민주주의와 차이가 접합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결과로 개인적 선호가 민주적 과정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유주의 모형에 대립되는 공화주의 모형은 자율적 시민들이 연대하여 실천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천적 의미를 간직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 모형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조건은 정확히 정치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뜻한다. 그러나, 만약 시장경쟁의 자유주의 모형에 따를 경우, 권력다툼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정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나게 된다. 그것은 정치과정에서 정치이전의 가치와 이해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집약시키게 되고, 결국 자유주의 모형에서 정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규범적 골자를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요컨대, 이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회의적인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공화주의는 정치적 담론의 힘을 신뢰한다. 그러나, 현대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공적 의사소통에 공동체주의의 해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하버마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도 정치적 담론을 윤리적으로 압축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다. 즉, 공동체주의적 해석 속에서 공화주의 모형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idealistic)이라고 본다. 예컨대, 그 해석에서 민주주의

의 과정은 공공복리에 전념하는 시민들의 덕목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근대민주주의의 건강과 안정이 정의로운 사회구조 뿐만 아니라 시민의 품격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덕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이미 루소로 하여금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과 윤리적 부담을 거부하는 사적 개인을 구분하도록 만든 과거의 사례가 있다. 또한 정치적 입법의 전원합의는 실질적인 윤리적 합의(consensus)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모형을 주장한다. 즉, 담화이론적 해석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을 정당화하는 힘은 기존의 윤리적 신념들의 수렴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다양한 토론형식 속에서 보다 나은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전제와 둘째, 공정한 협상과정을 보장하는 절차로부터 도출된다. 그 점에서, 담화이론은 공민적 자율성 개념을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과 결별된다. 이와 같이, 절차적 모형은 정치적 담론의 윤리적 해석을 지향하는 공화주의와 달리 차이를 표출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담화이론적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이 공정한 협상과정을 보장하는 ‘절차’와 다양한 토론형식 속에서 보다 나은 주장이 도출되도록 하는 ‘의사소통적 전제’라는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결국,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는 공적 토론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선호를 변화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²⁷⁾

IV. 맺는 말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1세기의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에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권 및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자유주

26) J. Habermas,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Praxis International* 12 (1992), p.7.

27) J. Johnson, "Habermas on Strategic and Communicative Action," *Political Theory* 18, No.2(May 1991), pp.187-191.

의가 처했던 환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차이점은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1880-90년대 자유주의자들이 좌파의 공격을 받으면서 마르크시즘을 통해 헤겔의 사상에 주목하고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접목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19세기가 지난 최근에는 마르크시즘의 퇴조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주의에 치우친 자유주의를 스스로 비판하면서 헤겔의 영향을 받아 구축되었던 자유민주주의의 변형이론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의 그린과 그에게 영향을 준 루소, 칸트, 헤겔 등은 모두 사회협동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질서를 규정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주의 사회의 부정적 특성을 분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그들의 구상도 정치체제의 민주화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특수이익들을 보편적인 선의 개념으로 포섭 내지 극복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린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사익에 의한 편견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간주하였고 홉하우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공동의지의 형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닌 종교적 이상에 토대를 둔 개혁가의 출현을 추구함으로써 추상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홉하우스의 대의민주주의이론은 이와 같은 신이상주의 정치철학의 추상성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밀(J.S. Mill)과 그린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형으로 제시된 다원주의적 수정은 바커에 의해 토의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이론으로 발전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루소의 일반의지를 토론의 합리적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내려는 노력으로서 영·미형 이론과 대륙형 이론의 종합화로 볼 수 있다. 바커는 19세기 영국 사상가들이 고민하던 민주주의와 자유의 모순관계를 부정하면서, 양자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원주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원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매개하고 토론민주주의를 통해 양자의 변증법적 균형을 모색한 최근의 이론적 노력이 결코 새로운 접근이 아님을 말해 준다.²⁸⁾ 그 점에서, 민주주의를

28) A.I. Eisenberg, *Reconstructing Political Pluralism*(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p.54, 85, 170.

실험의 과정으로 보면서 불평등의 극복에 주목한 홉하우스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위한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habib, Seyla. 1992, *Situating the Self*, Oxford: Polity Press.
- Cohen, Jean L. & Arato, Andrew.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onnolly, William E. 1991,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ryzek, John S. 1996, "Political Inclusion and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No.1 (September).
- Dryzek, John S. & Berejikian, Jeffrey. 1993, "Reconstructive Democratic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No.1 (March).
- Flathman, Richard E. 1989, *Toward a Liber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Summer).
- Gould, Carol. 1988, *Rethinking Democracy: Freedom and Social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ham, Keith. 1986, *The Battle of Democracy*, Sussex: Wheatsheaf Books.
- Habermas, J. 1992,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Praxis International* 12.
- Held, D. 1987,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Sites of Power, Problems of Democracy," *Alternative* 19, No.2(Spring).
- Ingram, D. 1993,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mmunicative Ethics For Democratic Theory," *Political Theory* 21, No.2(May).

- Johnson, J. 1991, "Habermas on Strategic and Communicative Action," *Political Theory* 18, No.2(May).
- Macpherson, C.B. 1973, *Democra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Manin, B. 1987,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15, No.3(August).
- Miller, D. 1990, "The Resurgence of Political Theory," *Political Studies* 38, No.3.
- Mouffe, C. 1992, *Dimension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and Community*, London: Routledge.
- Pieterse, Jan N. 1993, "Fukuyama and liberal democracy: the ends of history," *Economy and Society* 22, No.2(May).
- Phillips, A. 1993, *Democracy and Difference*, Oxford: Polity Press.
- Stern, P. 1991, "Citizenship, Community and Pluralism: The Current Dispute on Distributive Justice," *Praxis International* 11, No.3(October).
- Tomasi, J. 1991, "Individual Rights and Community Virtues," *Ethics* 101, No.3(April).
- Vincent, A.(ed.) 1986, *The Philosophy of T. H. Green*, Aldershot: Gower.
- Warren, M. 1992, "Democratic Theory and Self-Trans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No.1(March).
- Williams, H. 1994, "Democracy and Right in Habermas's Theory of Facticity and Valu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5, No.2(Summer).